

미얀마 불교 이야기
17. 미얀마 불교와 인도

인도는 미얀마 불교 중국 견제책으로 활용

지리적으로 인도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루트의 초입이 바로 미얀마이다. 불교 발생지인 인도 아대륙과 맞닿아 있는 미얀마는 일찍부터 불교를 포함한 인도문화가 전해졌다.

인도와 미얀마 간의 내왕은 석가족의 미얀마 이주 전설과 쉐다곤 파고다 건립 전설 등에서 시사하듯 육로를 통해 서로 내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거에는 육로보다는 해로가 여러 가지로 더 용이했다. 인도 아대륙과 미얀마 사이에는 벵골 만이라는 바다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해로로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이미 기원전부터 무역과 함께 민족의 이동 그리고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있어왔다.

인도의 영향은 미얀마를 거쳐 라오스나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등 광범위한 지역까지 이르렀다. 미얀마는 문순의 열대지방으로 동아시아보다는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와 자연환경적으로 더 가깝다. 때문에 오히려 인도에서 자취를 감춘 인도불교문화가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얀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다시 미얀마와 인도가 육로를 통한 국경이 무너진 것은 영국지배기간 동안이었다. 미얀마는 영국식민 지배 기간 동안 영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인도의 한 주에 편입됐다가 분리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분할정책에 따라 대거 인도인들을 미얀마에 이주시켜 통치하기도 하였다.

이 때 이주한 많은 인도인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미얀마 인구의 2%를 형성하고 있다.(이에 비해 중국계는 3%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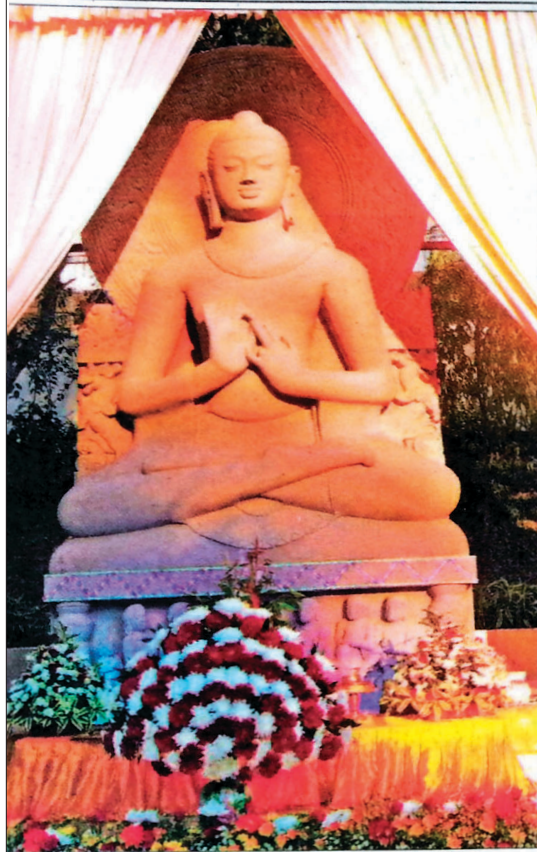
이러한 시기에 미얀마와 인도 양국 간의 불교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중요한 인물은 다음아닌 고엔카(S. N. Goenka: 1924~)이다.

현재 인도 국적을 지니고 있는 그는 영국식민기간에 이주한 인도 부모로부터 미얀마에서 태어나 1969년 그의 나이 45세에 인도로 돌아갈 때까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였다. 그는 31세 때에 미얀마의 재가자인 우 바 킨(U Ba Khin)을 만나 위빠사나 수행을 하였다. 14년 동안 우 바 킨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미얀마의 위빠사나 수행전통과 불교를 다시 불교의 발생지인 그의 고국에 옮기는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봄베이의 이가뜨뿌리(Igatpuri)에 위빠사나 수행센터와 위빠사나 연구소(Vipassana Research Institute)를 세워 인도는 물론 전세계에 불교 진흥사업과 위빠사나 수행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인도에 있으면 미얀마 전통처럼 속식 등 일체를 제공하는 그의 수행 센터를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의 위빠사나 수행센터에는 수많은 인도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찾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에 그의 위빠사나 수행센터 분원이 있을 정도다. 그의 역할은 인도에서는 사라진 불교전통을 미얀마에서 체득한 수행을 통해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는 필자가 2012년 12월 미얀마를 찾았을 때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인도인과 외국인도 함께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국립극장에서 법문을 하는 등 양국 사내가 떠들썩할 정도로 행사를 치렀다.

같은 시기인 2012년 12월 15~17일 미얀마에서는 인도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국제불교문화유산학

The New Light of Myanmar Monday, 17 December, 2012



Waxing of Nadaw 1374 ME
Chancellor of Sitagu International Buddhist Academy Agga Maha Pandita Dr. Bhaddanta Nanissara, members of the Sangha, Union Minister Thura U Myint Maung, Indian External

Dhammaçakka Mudra sand stone Buddha Image consecrated



takadhara title recipient sermon on the lotus throne is by the Indian Prime Minister Minister, Deputy Minister for Religious Affairs U Sayadaws and international the replica of Buddha Image during his visit to Myanmar for Religious Affairs U Minister Thura U Myint Maung, Indian External Minister Thura U Myint Maung, Indian External Minister Thura U Myint Maung, Indian External

술대회(International Seminar on Buddhist Cultural Heritage)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이후 20일까지 3일간은 미얀마의 주요 불교유적지와 불교 대학 등을 답사가 기획됐다.

이 같은 불교행사는 양국 수뇌부가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미얀마의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2011년 10월 인도 방문 시에 인도의 담모한 싱(Manmohan Singh) 수상의 제의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인도정부의 문화부(ICCR : The 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와 주 미얀마 인도대사관 그리고 미얀마 정부의 종교성(Ministry of Religious Affair, Myanmar)과 씨타구 국제불교대학 등이 연합해 함께 개최했다. 개최 목적은 표면 상으로는 양국과 관련한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행사로서 보다 성도 기원 2600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다.

양국은 이같은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양국 간에 기념비적인 관계발전으로 나아가자는 것을 서로 역점을 두어 강조했다.

필자도 이 때 초대받고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미얀마 부대통령(Dr. Sai Mauk Kham)과 인도 외무부 장관(Mr. Salman Khurshid) 그리고 씨타구 국제불교대학 교장 스님(Dr. Bhaddanta Nanissara) 등이 직접 보다 찬탄의 독송과 불단(佛

인도 위빠사나 수행을 역수입

모사 성물을 미얀마에 봉안

물류·경제 프로젝트 동시 진행

3일간에 걸친 행사의 마무리는 인도 측에서 담당

하고 미얀마 최고의 불교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에 수많은 인파속에 인도정부가 기증한 불상을 봉안하는 제막식 행사가 진행됐다.

약 5m 높이의 이 불상(佛像)은 인도 국보인 바라나시의 초전법륜 불상을 인도정부가 모사(模寫)한 것으로서 인도수상이 2012년 5월 29일 미얀마 방문 시 미얀마 종교성에 기증했다. 인도의외무 장관과 주 미얀마 인도대사 그리고 미얀마의 부대통령과 종교성 장관 등의 정부 수반과 각료들이 참석했으며 양국의 정부기관과 주요 인사들의 위원회로 구성된 불교문화유산 사진전과 불교영화제와 공연 이외에도 인도-미얀마 문화교류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제막식 끝에는 미얀마와 인도 정부가 세계불교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 때 모든 국가의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채택된 성명서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형 무형의 불교유산을 보존(preservation)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ASEAN SEAMEO SPAFA, SEAMEO CHAT은 물론 다른 지역적 국가적 또는 NGO 등의 모든 기구와 협력할 것.
- 인도와 미얀마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모든 유형 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Protection) 그리고 재건(Restoration)하는데 함께 노력을 경주할 것.

- 세계불교문화유산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할 것.
- 이러한 목적 하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국가들 간의 정보교환을 이행할 것.
-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불교학자와 불교도서 그리고 불교잡지와 VCD 등을 서로 교환하는 데 노력할 것.
- 불교의 지적 재산은 물론 불교국가와 불교공동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
- 지역이나 국가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
- 불교문화에 대한 관광과 불교 성지순례를 한층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것.

이후 각국의 불교 대표들은 미얀마 불교유적지와 주요불교대학 및 불교기관에 대한 설명회 차원의 답사를 가졌다. 미얀마의 중요 불교성지인 바간, 만달레이그리고 사가잉 등을 순례했다.

미얀마에서 불교는 종교적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 불교를 중국 경제의 동방정책의 주요 발판으로 활용한다.

인도는 중국의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에 맞서 기존에 미얀마를 군부와 민주화 문제와 관련해 미얀마를 비판했던 데에서 정경부리의 입장으로 선회하여 미얀마와의 깔라단 프로젝트와 같은 실리를 위해 불교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불교의 발생지답게 중국보다 유리하게 불교를 소프트 파워로 주변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다.

인도는 미얀마의 분쟁지역인 라카인 주(Rakhine state)의 주도인 시트웨(Sittwe)에 현대식 항구를 건설하고 이를 동부인도인 콜카타(Kolkata) 항구에 그리고 다시 깔라단 강을 따라 동북부 인도인 미조람(Mizoram)을 연결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인도가 동남 아시아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를 깔라단 프로젝트(MMTTP : Kaladan Multi Modal Transit Transport Project)라고 한다.

이것이 완성되면 양국 간 엄청난 물류비용 절감과 무역증대 등의 정치 경제적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인도의 절박한 상황은 인도가 프로젝트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완공되면 미얀마 측에 양도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인도는 미얀마와의 깔라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정치 경제의 실익을 위한 국가전략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동남아 또는 아시아에서 불교를 두고 중국의 남진정책과 인도의 동방정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불교는 현재 국제관계에 있어, 단순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정치, 경제적인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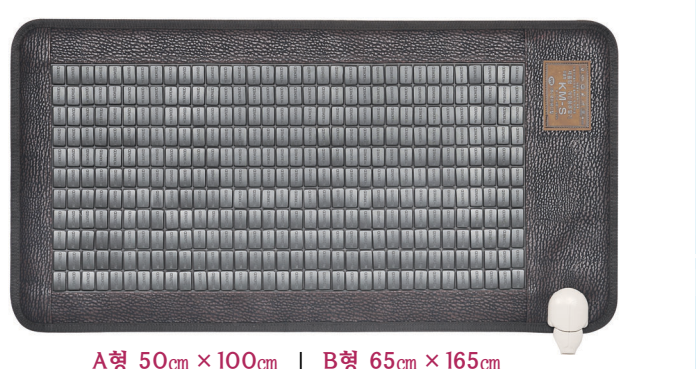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늘 파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원적외선**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A형 50cm x 100cm | B형 65cm x 165cm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침시에는 온열 매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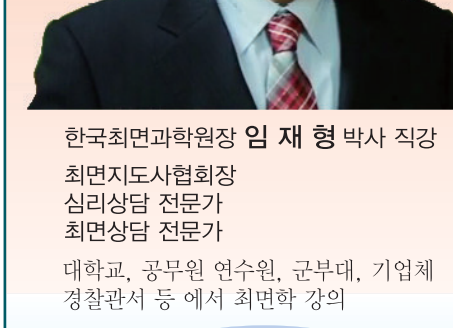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전생요법·빙의치유법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대학,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에서 최면학 강의

- KBS 3대목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 한번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무모했기
- 이것이그날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MBN 한일프로 특종생생
- YTN 사이언스 과학행기
- tvN 심령술전문 예스시드 의 각종 케일빙성에 다수 출연

23일 월요일 개강 (1회 무료수강 가능)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장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에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형사 약사요...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현재 접수중
한국최면과학원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